

드라이브 레코더의 시장 예측

1. 드라이브 레코더의 용도

드라이브 레코더는 사업용 자동차의 트러블이나 사고 발생 시의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율 저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에코 드라이브 추진과 안전 운전 대책을 위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연비 향상 대책

부드러운 발진, 아이들링 정지 등의 운전 상황을 분석하여 에코 드라이브 지도와 연비 향상에 이용

(2) 안전 운전 추진

급가속이나 급브레이크, 급핸들 조정 등, 교통사고 상황의 분석을 통한 안전 운전 교육 실행을 위해 이용

(3) 상용차로서의 운행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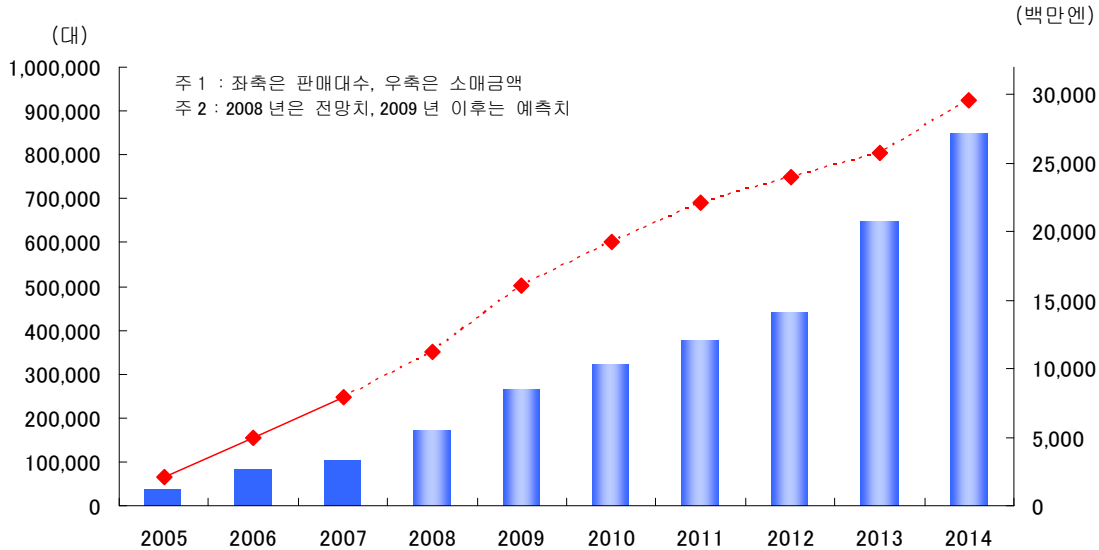
운행 경로나 차량 속도 등의 기록을 통해 교통체제 분석 등을 실행하여 운행 효율화에 이용

(4) 방법

차내 도난이나 침입자의 승차 감시 목적으로 이용

2. 드라이브 레코더 시장

일본 드라이브 레코더 시장의 장래 예측



출처 : 주식회사 야노 경제연구소 '드라이브 레코더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 2008' (2008년 11월 20일 발표)

3. 드라이브 레코더의 저전력 운전을 위한 활용

자동차 업계에서의 저전력 추진 내용 중, '저전력 운전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20%의 연비 개선 효과 (※1)가 전망된다는 내용도 있어, 각 업계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전력 운전 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에서만 ① CO₂ 배출 삭감은 3000만톤 이상, ② 경제 효과는 1조 4000억엔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 활용 사례 >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한 에코 드라이브 지원 툴'

에코 드라이브 항목에 대해 드라이브 레코더가 판단하고, 온타임 통지나 운전 정지 후의 평가, 또 기록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평가, 드라이버에 대한 지도를 반복하는 WEB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레코더가 보급되고, 에코 드라이브 시스템 구축으로 기대되는 경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옴은 드라이브 레코더의 장래성에 IC를 통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1 : 부드러운 엑셀 발진으로 연비 10% 이상 향상, 목표 속도 5km/h 억제로 연비 5% 향상, 난기 운행과 불필요한 아이들링을 줄여 20%의 연비 향상 목표. ((재) 저전력 센터 등의 조치)

※2 : 일본 자동차 보유수 (7920만대)의 평균 연간 주행거리 (8645km) (국토교통청 발표 통계 데이터)에 따라 평균 연비를 10km/ℓ로 가정하여 시산.

CO₂ 배출량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청이 정하는 보고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산정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